

DAEJEON CIVIC YOUTH CHO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창단

Daejeon is DCYC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모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를
꿈꾼다!**

Contents

- 04 대전광역시장 인사말
- 05 예술감독 인사말
- 06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소개
- 08 예술감독 소개
- 10 2022 시즌 주요 연주 일정
- 12 정기연주회
- 16 기획연주회
- 19 마스터클래스
- 20 유럽투어연주
- 22 트레이너·반주자 소개
- 23 사무국·단원소개
- 26 정기회원 안내
- 27 단원모집 안내
- 28 연 혁
- 30 2022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범 내려온다!!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올해 대전에서는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가 개최되고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는 신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많은 손길과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립예술단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대전시민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청소년합창단은 2018년부터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려낸 '창작합창 음악극'들을 선보이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우리 청소년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2022년 역사 음악극의 마지막 시리즈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무대에 올립니다. 또한 대전지역 합창단들과 전국 합창단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화합의 장을 여는 페스티벌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청소년합창을 선도하며 열심히 노력해 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창단40주년 기념연주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전의 음악 꿈나무들이 함께 하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맑고 아름다운 하모니에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대전광역시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도 호랑이 기운을 받아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올해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82년에 창단되어 뛰어난 기량과 획기적인 역량으로 새로운 합창음악을 만들어내며 매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연 40여 회의 연주로 대전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서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청소년합창단은 영혼을 울리는 맑고 청명한 하모니를 통해 코로나로 생겨난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대망의 시작은 애국 열사들의 뜨거운 삶을 그려낸 역사 창작합창 음악극입니다. 이 작품은 독립 영웅 이야기 시리즈 4부작 중 네 번째 작품으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를 오페라와 연극적인 요소 그리고 안무, 영상과 음향의 효과를 더해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의 대전 개최를 축하하는 연주도 계획 중이며 대전 및 전국 청소년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을 키우는 화합의 장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민들과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연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대전 곳곳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천경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꿈꾸는 나무들, 하모니로 미래의 숲을 이룬다.

대전의 합창을 이끌어가는 꿈나무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은 1982년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 이후 2003년 중·고등부(Intermediate Choir)와 대학생(Concert Choir) 합창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연합(Combine)으로 연주하며, 여러 형태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노래하는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합창단으로 개편 및 개칭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시즌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천경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취임부터는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의 합창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실험과 도전을 통한 세계인이 공감할 청소년 레퍼토리 개발과 합창 발성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충효', '가족', '사랑'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전석 매진을 이끌고 있다. 1988년 <제14회 구마모토 국제청소년음악제>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 <온갖 새들을 부르는 노래>, 2009년 <반디의 노래> 환경 뮤지컬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음악문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2007년 한국

합창단으로 유일하게 참가했던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및 <치체스터 음악회>에서의 연주는 우리 청소년합창단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절로서 대전의 위상을 한껏 높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4년 8월, 유엔 유네스코(UN UNESCO) 산하 세계합창연맹(IFCM)에서 개최한 '세계합창심포지엄 및 합창축제(WSCM)'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참가했으며, 2015년에는 음악과 평화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참가해 맑은 영혼의 소리로 유럽인들에게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하모니는 찬사를 받았다.

배우며 노래하는 창의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매 연주 뛰어난 기량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Daejeon Civic Youth Choir Dreaming Trees make Future Forests!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is a Municipal Performing Arts Group belonging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one of the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in Republic of Korea.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a city with a population of 1.5 million, and it is a good place to live because of its combination of science and art. The Daejeon City Youth Choir(DCYC) was established in 1982 with the suppor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is leading the revitalization of youth music culture in Daejeon.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which creates a new chorus with excellent technique and advanced technique, has been active in concert performances such as regular concerts, project concerts, and visiting concerts.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took the opportunity to become active on a worldwide scale through the 14th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n Kumamoto in 1988. The two 'Environmental' musicals, which were "The Singing Songs, Calling all kinds of Birds" in 2000, and "The Lightning Beetle's Songs" in 2009, received reviews to have great effects on building upright characters

for adolescents and making creative culture music.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our youth choir who only participated in the United Kingdom's Edinburgh Festival as well as the Chichester Concert was the beginning of the rising up of the domestic and world stages as cultural ambassadors.

Also, they participated in the World Symposium for Choral Music (WSCM), which was host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IFCM) which is under the UN UNESCO Organiza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horus in August 2014, and from 2012 the Intermediate and Concert Choirs performed individually or combined with a wide repertoire of songs, and they are gaining attention as an ideal chorus from all over the world. In 2015, the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which was held in the cities of music, Vienna and Salzburg in Austria, and also in Prague, Czech Republic., and performed to the whole world with the pure soul of the sound of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s beautiful harmony.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_ 천경필

끊임없는 열정과 경이로운 몰입으로 합창의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시대 지휘자!

소리를 상상하며 특유의 재능과 열정으로 지휘 인생을 그려 나가는 천경필 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1997년 이탈리아 조르조 페데리코 게디니(G. F. GHEDINI)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성악과 합창지휘를 공부하였다.

2001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인터내셔널 아트 국제 아카데미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의 대가인 파올로 타리초티(Paolo Taricciotti)에게 합창지휘를 사사하였으며 최우수 졸업하였다. 2002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가에타노 도니체티(G. DONIZETTI)아카데미에서 알베르토 모따에게 합창지휘를 사사받고 역시 최우수 졸업하게 되어 유럽 무대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탈리아 바레세(VARESE)시에서 주최하는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에서 벨기에 국립방송국 지휘자 에릭 플로리안(Heyerick Florian)에게 사사함과 동시에 최우수 지휘자로 선발되어 한국인 최초로 바레세(VARESE) 시립합창단을 지휘하였다. 이날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바로크 음악의 탁월한 해석”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유럽에서 데뷔 무대를 갖은 동양에서 온 젊은 지휘자에게 주목하였다.

그 후 유럽 국제 에이전트 아르카디아에 소속되어 많은 오페라 솔리스트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성악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대전필과이어를 창단하여 새로운 합창음악에 도전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합창단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영재들을 위한 대학합창의 장을 펼쳐 나갔다. 또한 청소년 합창교육에 관심을 갖고 평송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여 청소년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2008년 공주 필하모니 합창단을 창단하여 낙후된 지역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해 7월에는 대전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하였다.

2013년 대전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전 청소년합창음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16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 청소년 합창음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시대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다.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Kyoung-Pil Cheon

Conductor of our time presents appealing choir with endless passion and phenomenal immersion!

Artistic Director & Conductor, Kyoung-Pil Cheon is a conductor who is imagining the sound of music and painting his conductor life with special talent and passion, and graduated and studied vocal music and chorus conducting in Giorgio Federico Ghedini National Academy of Music (G.F. GHEDINI).

In 2001, he studied under Paolo Taricciotti, who was a master conductor of Choir and Orchestra at Agent International Art (A.I. ART) in Rome, Italy, and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n 2002, he studied Choral Conducting under Alberto Motta at Gaetano Donizetti Academy (G. DONIZETTI) in Milan, Italy. Again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t led him to be recognizable in the European stage. In 2003, he studied under the Belgian National Broadcast Conductor, Heyerick Florian, and was selected as the best conductor at the same time in the top choir conducting course, which was hosted by the city of Varese in Italy. On that day, many journalists paid tribute to his outstanding performance by saying "Exceptional interpretation of Baroque music," and they began to notice this young conductor from Asia who had just debuted.

After that, he belonged to European International Agent, Associazione Arcadia, and actively conducted many opera soloists and choir performances. After returning back to Korea, he founded the Daejeon Phil Choir, which was composed mainly of vocal music majors, and challenged the new chorus music. Also, he was appointed as a conductor in the KAIST choir and he started a new chapter of college choirs for gifted students. In addition, he became interested in youth choir education and he founded Pyeongsong Boys Choir to put his effort towards youth education. In 2008, he founded Gongju Phil Harmony Choir to dedicate local music development in lagging areas. In the same year in July, he conducted as a guest conductor in Daejeon Civic Choir.

In 2009, he established the Daejeon Parish Girls and Boys Catholic Chorus and was appointed as a music director at the same time. So, he dedicated research to youth chorus music and religious music and in 2013, he was selected as chairman of the Daejeon Metropolitan Girls and Boys Chorus Conductor Federation. He is currently leading Daejeon youth chorus music very actively.

Since 2016, he has been appointed as Art Director of Daejeon Civic Youth Choir and is presenting a new model for future youth chorus music.



정기연주회

- | | |
|----------------------------------|------------------------------|
| 5. 21. (토) 오후 5시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제79회 정기연주회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
| 11. 26. (토) 오후 5시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제80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



기획연주회

- | | |
|-------------------------------------|----------------|
| 3. 19. (토) 오후 5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 청소년합창페스티벌 |
| 7. 9. (토) 오후 5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 해외투어 프리뷰 연주회 |
| 10. 6. (목)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 대전UCLG총회 기념연주회 |
| 10. 22. (토) 오후 5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 창단40주년 기념연주회 |

수요브런치콘서트

2. 23. (수) 오전 11시
시청 20층 하늘마당
10. 12. (수) 오전 11시
시청 20층 하늘마당



화목한 문화산책

4. 12. (화), 14. (목), 19. (화) 오후 4시, 6시
대덕구
6. 21. (화), 23. (목) 오후 4시, 6시 동구
11. 15. (화) 오후 7시 30분
중구



찾아가는 연주

- 수험생을 위한 연주회
12. 15. (목) ~ 16. (금) 오전 11시
대전평생학습관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합창단의 음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곳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관, 시설 등)
Tel. [042]270-8372 / E-mail. dcyc@hanmail.net



제79회 정기연주회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일 시 5. 21. (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예술감독·지휘 천경필
작 곡 정순도
대 본 이난영
연 출 윤상호
편 곡 김민아



“승리의 전략은 오직 하나다.
독립의 염원으로 모두 뭉쳐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싸워라!!”

- 드라마 오라토리오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모두 하나 되어' 중

1920년, 죽음의 골짜기에서의 벌어졌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
그날의 서사를 드라마 오라토리오(Drama Oratorio)로 만난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선사하는 뜨거운 감동의 무대!!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기획하여 제작한 4부작 창작 합창 음악극 시리즈의 피날레!

2018년 '마지막 편지', 2019년 '그 날의 외침 1919', 2020년 '단재의 혼'을 이어 2022년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봉오동 전투와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 된 청산리 전투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오라토리오에 기반한 합창 형식에 연극적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극으로 창작한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은 독립을 위해 피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키우고자 준비한 작품이다.

예술감독 겸 지휘자 천경필이 총감독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작곡가 정순도, 대본 이난영, 그리고 윤상호 연출 등 각 분야 최고의 예술가들이 힘을 모았다. 특히 4부작 '창작 합창극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적인 요소와 영상과 음향의 효과를 극에 더하여 더욱 현실감 높은 무대로 만들었다.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희생한 독립영웅들의 대서사시, <봉오동·청산리 최후의 결전>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할 것이다.

제80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일 시 11. 26. (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예술감독·지휘 천경필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바로 청소년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가곡과 캐롤 등으로 꾸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여성합창]

돌아가는 꽃

도종환 작시 / 임태규 작곡 / 김민아 편곡

O, Sapientia

오, 지혜여

T. Vulc

벌크

Vivos voco

산 자를 부르다

J. Szymko

스짐코

[연합합창]

Totus tuus

모두 당신의 것

M. J. Trotta

트로타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작시 / 김새롬 작곡

금강에 살으리랏다

이은상 작시 / 홍난파 작곡 / 오병희 편곡

Gaur akelarre

마녀들의 집회

J. Elberdin

엘베르딘

Hold on

조금만 더 참아

arr. S. V. Gibbs

깁스 편곡

Deck the hall

아름답게 장식하세

J. Rutter

루터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E. Pola & G. Wyle

일 년 중 가장 멋진 시간

폴라 & 와일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정호승 작시 / 김범준 작곡

크리스마스니까

조혜영 편곡

크리스마스 메들리

김민아 편곡

해외연주 프리뷰 연주회



일 시 7. 9. (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예술감독·지휘 천경필
특별출연 소프라노 서선영

[여성합창] Northern Lights 북극광	O. Gjeilo 아일로	Great Go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	arr. S. V. Gibbs 킵스 편곡
Koudjay 쿠자이	S. Guillaume 기욤	섬집아기 한인현 작사 / 이홍렬 작곡 / 안효영 편곡	
님의 노래	김소월 작시 / 조성은 작곡	금강에 살으리랏다 이은상 작시 / 홍난파 작곡 / 오병희 편곡	
[연합합창] Lux Aeterna 영원한 빛	B. A. Schmidt 슈미트	아리랑	우효원 편곡
Chariots 전차	P. L. van Dijk 데이크	BTS Medley	차혜원 편곡

2022 대전UCLG총회 기념연주회



일 시 10. 6.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지휘 정명훈
소프라노 홍주영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박지민
베이스 심기환
연주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대전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대전UCLG총회

대전UCLG세계총회가 2022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UCLG총회는 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도시 외교의 무대가 펼쳐지는 중요한 행사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 아래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이 함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한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도 평가받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이번 공연은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한 무대에 오르는 기념적인 무대로 대전의 문화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대임과 동시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뛰어난 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연주회

일 시 10. 22. (토) 오후 5시
장 소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예술감독·지휘 천경필

1982년 창단 후 청소년 합창을 선도하며
열심히 걸어온 시간, 어느덧 40년.

1982년 대전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하여
2003년 중,고등부와 대학생 합창부가
독립적으로 또한 연합합창이 가능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가곡부터 뮤지컬, 창작곡까지 탄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우리들의만의 특별한 무대를 만듭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연주회!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서선영 마스터클래스



일 시 6. 25. (토) 오전 10시
장 소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연습실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성악부문 1위,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등
천상의 목소리로 세계 오페라 무대를 휩쓴 최고의 디바!
소프라노 서선영 교수와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미래 성악가로서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소프라노 서선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및 전문사 리트 & 오라토리오과 졸업
- 독일 로버트 슈만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학술교류처 DAAD 장학생 선정)
-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1위,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주 선정 '2011 최고의 소프라노'
- 스위스 바젤 국립극장, 도이치 오퍼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함부르크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오페라 <예브게니 오토크>, <가면무도회>,
<로엔그린>, <나비부인> 등 주역 출연
- 2017년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신인상 수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2022 유럽투어연주

네덜란드 국제 청소년음악페스티벌 & 벨기에 국제 음악페스티벌

한국을 대표하여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이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 마련과 청소년합창단의 국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2022 유럽투어'에 오른다.

벨기에 '크노케 하이스트 썸머 뮤직 페스티벌'

벨기에 'Klassiek Leeft Meesterlijk'은 벨기에 여왕이 지원하는 세계 3대 콩쿠르인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공식 파트너 페스티벌이다. 벨기에 북해 연안의 도시 크노케 하이스트에서 여름에 열리는 국제 뮤직 페스티벌, 휴양 도시로 유명한 벨기에의 크노케 하이스트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솔리스트와 앙상블의 공연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매년 전 공연이 거의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립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in 헬데를란트

2007년부터 매년 NJO에서 개최하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은 젊은 음악적 인재 육성에 주점을 두고 있다.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 실내악, 댄스, 음악극 등 85개가 넘는 공연이 열릴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클링과 같이 걸으면서 자연을 발견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야외 공연 등, 헬데를란트(Gelderland)전주를 걸쳐 진행된다.



트레이너 장광석

Trainer_Kwang-Suk Chang

-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사), 비엔나 시립대학교(석사) 졸업
- 다수 오페라 및 가곡음악회 출연(300여회), 다수의 방송경력 (TJB 생방송투데이 <바리톤 장광석의 문화는 아름다워> 진행자), 다수의 음악칼럼(문화잡지 <문화와 꿈-바리톤 장광석의 무대에서>)
- 전) 비엔나 슈베르트 음악원, 한국영상대, 중부대, 충남대 출강
-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상임트레이너, 대전·세종 녹색연합 홍보대사



트레이너 황예은

Trainer_Ye-Eun Hwang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한세대학교 합창지휘 대학원 합창지휘과 졸업
- 전) 수원, 군산, 포항 등 시립합창단 합창 및 오케스트라 편곡
-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비상임 트레이너
합창, 오케스트라 작곡 및 편곡가로 활동



피아노 오효순

Piano_Hyo-Soon Oh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피아노전공), 동대학원 음악과 졸업
- 대전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강사 역임
- 대전 필파이어 반주자, 대전여성 CBS 반주자 역임
-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상임반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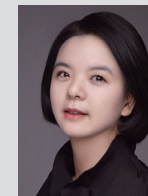
피아노 윤소진

Piano_So-Jin Yoon

-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피아노전공)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과 반주전공 석사 중
- 청주예술가곡 제18회 신인음악회 연주
- 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비상임반주자

사무국

Executive office



사무국장
임지연
Ji-Yeon Lim



기획팀장
이은미
Eun-Mi Lee



홍보·마케팅
정현희
Hyun-Hee Jung



총무
이현정
Hyun-Jung Lee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DCYC Members

중·고등부 Intermediate Choir

소프라노 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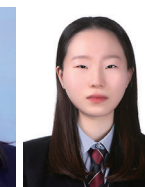
권미래



백주아



서민지



송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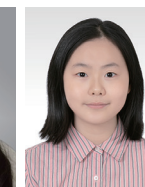
안 샘



유다경



윤서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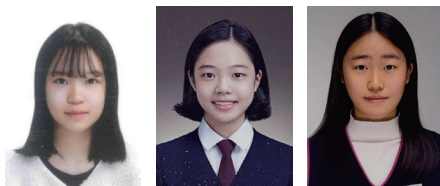


윤영리



이유미

메조 소프라노
Mezzo Soprano



나윤희

박수빈

손혜경



오현서

윤나연

알토
Al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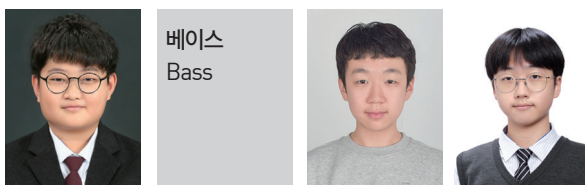


김서연

박나래

박효은

박희연



임지후

류강현

정민준

대학부 Concert Choir

소프라노
Soprano



김성은

김유빈

문유경

박지오

소프라노
Soprano



송인서

안희경

유아영

메조 소프라노
Mezzo Soprano



김지은

안정빈

임푸름

알토
Alto



김윤지

류지영

유나영

테너
Tenor



고종찬

구재훈

안창용

정지민

베이스
Bass



곽현근

박문수

배철우

황시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회원 DCYC Membership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여러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dcyc.artdj.kr)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시면 공연정보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1. 개인 - 20,000원
2. 가족회원 - 35,000원 (2인)
3. 가족회원 - 50,000원 (3인)
4. 4인 이상 및 단체 - 15,000원 × 인원

가입안내

1.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홈페이지 로그인
2. 정기회원 ⇒ 정기회원가입 ⇒ 홈페이지 하단
3. 가입절차 진행 및 결제
4. 가입완료

가입혜택

1.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주관 시즌 전 공연 R석 좌석권 제공
2. 회원전용 창구 운영으로 공연관람시 신속한 티켓 수령
3. 회원추가 구매시 30% 할인 혜택
4. 시즌 브로슈어 및 매 공연 안내문 발송
5. 타 기관과의 공동주관공연은 주최측과의 협의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

티켓 예약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연예약

티켓 수령방법

공연당일 공연시작 20분 전까지 회원 전용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

문의 042-270-8373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Recruiting Members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에서는 성실하고 재능 있는 합창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내용

구 분	모집부문	모집부문	응시자격	응시자격
중·고등부 및 대학부 단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자유곡 1곡 •시창테스트 •면접	•예비중학생(현, 초6학년) •중고대학생(남·여) •대학(휴학생포함 만 24세 이하)	0 명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중·고대학생 또는 주민등록상 대전거주자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주2~3회 이상 연습 참여 가능자

2. 모집기간

정기오디션 : 2022년 12월 중(정확한 날짜는 홈페이지 추후공지 예정)

*결원 시 수시오디션 실시

문 의 : [042] 270-8372~5 (청소년합창단 사무국)

홈페이지 (dcyc.artdj.kr)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

3.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응시원서 1부, 응시악보 2부 (당일 지참 가능)

접수장소 : 청소년합창단 사무국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4. 특전

가. 수준 높은 합창교육과 활발한 공연활동

나. 모든 공연의 각종 경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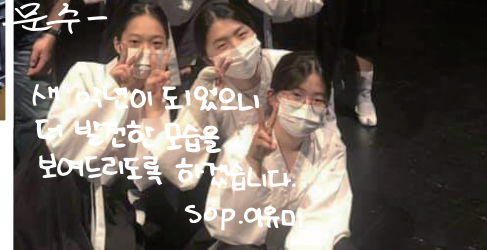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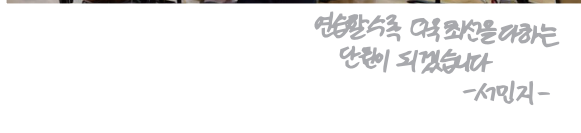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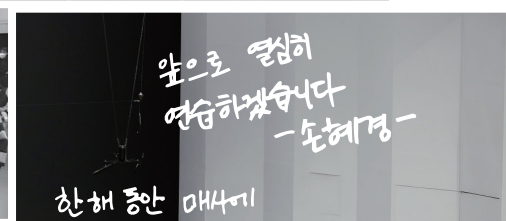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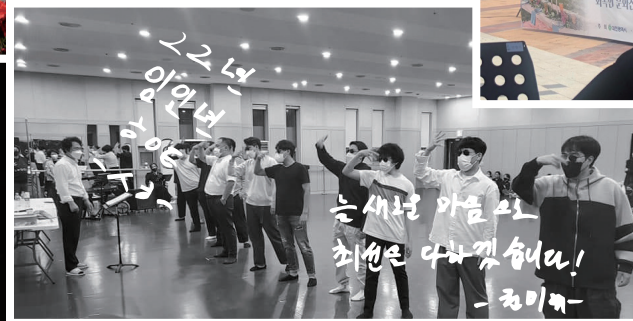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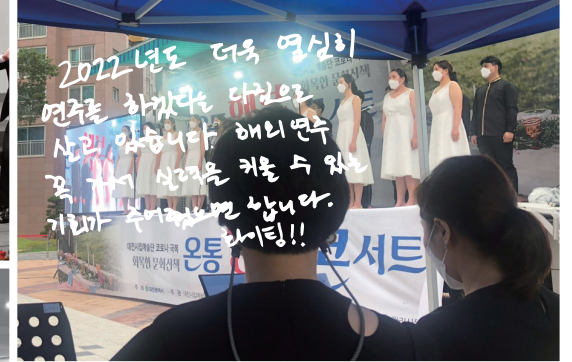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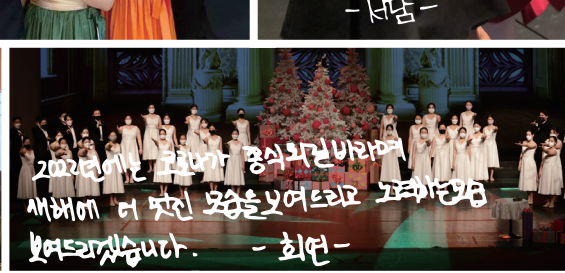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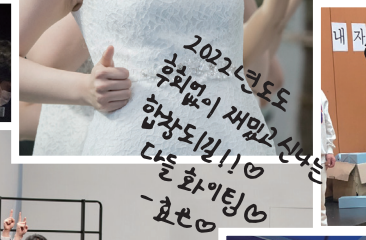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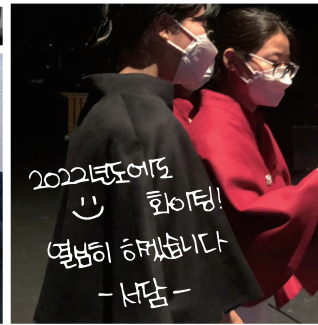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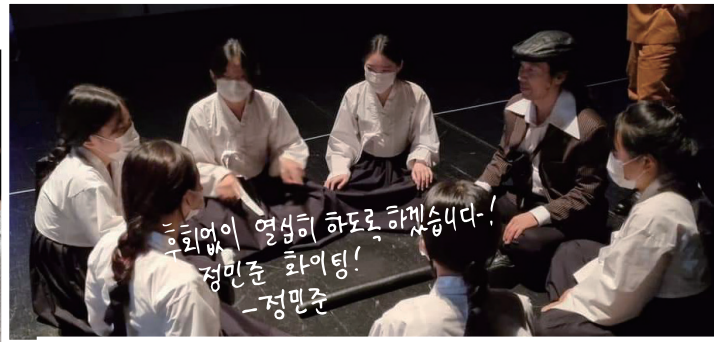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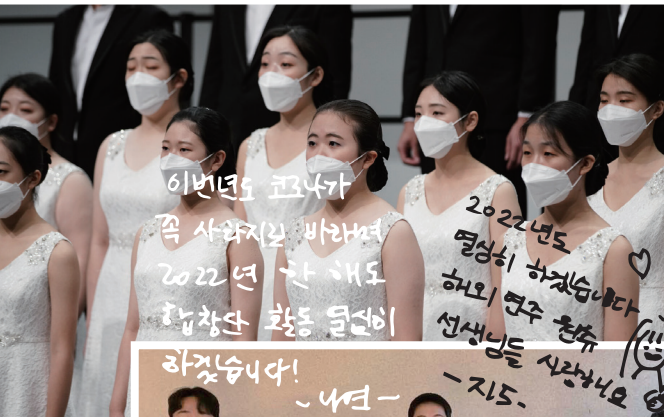
다. 분기별 장학금 전액 지원

라. 연습 시 식사 및 간식 제공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연혁 DCYC History

1982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제1대 지휘자 안동민 취임	1989 제2대 지휘자 김영국 취임	1997 제3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1998 일본 구마모토 '국제청소년음악제' 참가	1982 Founded & 1st Conductor Inaugurated	1989 2nd Conductor Inaugurated	1997 3rd conductor Inaugurated	1998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n Kumamoto(Japan)
2001 제4대 지휘자 김철수 취임	2002 미국 독립 224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참가	2003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개칭 및 개편	2004 제5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2001 4th Conductor Inaugurated	2002 Celebration Concert of 224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of the USA	2003 Renamed & Reorganization	2004 5th Conductor Inaugurated
2007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초청 공연	2008 제6대 지휘자 이영재 취임	2011 부산국제합창제	2012 제7대 지휘자 김덕규 취임	2007 Invited the Edinburgh Festival & Concert in Chichester(UK)	2008 6th Conductor Inaugurated	2011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2012 7th Conductor Inaugurated
2013 2013 대전국제합창제	2014 제10회 국제합창심포지엄	2015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 '국제음악페스티벌' 참가	2016 제8대 지휘자 천경필 취임	2013 2013 Daejeo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2014 10th World Symposium on Choral Music	2015 The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in Vienna, Salzburg, Prague (Austria & Czech Republic)	2016 8th Conductor Inaugurated
2018 창작합창음악극 <마지막 편지>	2019 창작합창음악극 <그날의 외침 1919>	2020 창작합창음악극 <단재의 혼>	2021 창작합창음악극 앙코르 <단재의 혼>	2018 Drama Oratorio Series I <Last Letter>	2019 Drama Oratorio Series II <1919>	2020 Drama Oratorio Series III <Danjae Sin Chaeho>	2021 Drama Oratorio Encore <Danjae Sin Chaeho>







Daejeon Civic Youth Choi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만년동 396) 대전예술의전당 내
Tel. [042] 270-8372~5 Fax. [042] 270-8379 dcyc.artdj.kr